

韓國企業의 管理會計시스템에 관한 實證的 考察

康熙壽*

目 次

- | | |
|-----------------------|--------------------------------------|
| I. 序論 | 4. 企業環境·組織構造·管理類型·
管理會計시스템간의 關係分析 |
| II. 管理會計시스템의 狀況理論 | 5. 管理會計시스템의 決定要因 |
| III. 韓國企業의 管理會計시스템 分析 | 6. 狀況의 適合性 |
| 1. 調査概要 | IV. 結論 |
| 2. 變數의 設定 | |
| 3. 變數들간의 集落分析 | |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管理會計시스템이 組織의 效率的인 기능수행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管理會計시스템의 技術적 성격 이외에도 조직의 環境, 組織構造 그리고 管理類型 등과 같은 個人的, 組織的 諸特性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최근에 이러한 效率的인 管理會計시스템에 관한 狀況理論的 研究가 행해지고 있으나,¹⁾ 이에

1) V. Sothe, "Contingency Theory of Organization Structure", in J. L. Livingstone(ed), *Managerial Accounting. The Behavioral Foundations* (Grid, 1975), pp.51~63.

L.A. Gordon and D. Miller, "A Contingency Framework for the design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1976), pp.59~69.

J. H. waterhouse and P. Tiessen, "A contingency framework for Management Accounting Systems Research,"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No.1, 1978), pp.6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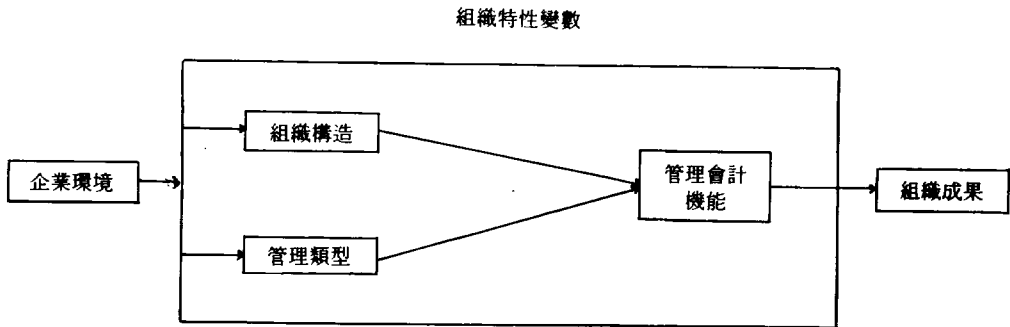
* 社會科學大學 助教授

대한 實證的 研究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한국企業에 있어서 企業環境, 組織構造, 管理類型이 管理會計機能의 有用性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들 變數들간의 相互關係를 연구하는데 그 目的을 두었다.

2. 研究를 위한 概念的 틀

본 연구에서는 狀況理論的 접근에 따라 管理會計시스템에 대한 諸變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또한 實證的으로 分析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1>과 같이 概念的 틀(conceptual framework)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1> 研究를 위한 概念的 틀

3. 研究假說

管理會計는 組織的 眞空(organizational vacuum) 속에서는 存在할 수 없으며, 이는 組織變數와 管理會計는 서로 밀접한 關聯이 있기 때문이다.²⁾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管理會計機能을 經營管理의 從屬變數로 보고 이들의 關聯性을 밝히고자 다음의 假說을 設定하였다.

假說1: 組織構造는 企業環境과 直接的인 關係가 있을 것이다.

假說2: 管理會計시스템은 組織構造와 直接的인 關係가 있을 것이다.

假說3: 組織構造는 管理類型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假說4: 企業環境은 管理類型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假說5: 管理類型과 管理會計시스템은 關聯이 있을 것이다.

假說6: 管理會計시스템은 企業環境·組織構造·管理類型의 相互作用에 의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假說7: 組織環境과 組織特性變數와의 適合은 經營成果에 일정한 關係를 갖일 것이다.

2) E. H. Caplan, *Management Accounting and Behavioral Sciences*.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1, p.56.

Ⅱ. 管理會計시스템의 狀況理論

狀況理論에서의 기본적인 특질은 組織이 다른 조건하에서 어떻게 管理會計가 機能하는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狀況的이라는 점이다.

즉, 從來의 理論이 會計시스템의 諸特性과 組織에 있어서 個人 또는 集團의 行動과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대해, 狀況理論에서는 모든 狀況에 唯一最善의 方法이나 理論은 存在하지 않는다³⁾는 것이며, 그 妥當성은 狀況에 의존한다는 접근법이다. 따라서 狀況理論은 一般性 또는 普遍性的 限界를 認識하고 現實적으로 環境條件이나 組織構造에 適合한 시스템 내지 諸技術의 實證的인 資料에 기초한 選擇論을 提示한다. 管理會計의 狀況理論은 組織의 諸條件에 適合한 會計시스템의 設計와 運用이라고 하는 즉 選擇 가능한 組織모델의 代替案을 環境條件과 對應시켜서 提示하는 것이다.

오늘날 管理會計의 狀況理論에 대한 諸研究는 系統的으로 收集된 經驗的 資料를 基礎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實證的이며, 理論形成에 있어서 狀況變數 및 構造變數를 獨立變數로 하여 會計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각 項目의 狀況要因을 考慮한 分析을 한다는 점에서 多變量的이다. 最近에 組織論 또는 組織研究의 成果에 基礎를 둔 管理會計의 狀況理論에 관한 諸研究는 <표1>과 같다. 狀況理論은 組織의 分析單位가 되는 個人·集團·組織의 어느 水準을 對象으로 해도 展開가 可能하다.⁴⁾

Ⅲ. 韓國企業의 管理會計시스템 分析

1. 調査概要

研究假說을 檢證하는데 필요한 資料는 ①設問紙調査 ②現地訪問調査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①의 設問紙調査는 1987年 4月 13일부터 5月 12일까지 30日間 郵便調査法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포함되는 標本은 1987年 2月末 현재 上場會社 가운데 管理對象會社와 金融·證券·保險業 등을 除外한 268個 會社를 대상으로 設問調査票를 우송하여 108部の 調査票를 回收함으로써 回收率은 41%를 나타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설문서는 分析過程에 들어가기 전에 제외시킨 결과 실제로 分析에 이용된 설문지는 96枚이었다. ②의 現地訪問調査는 設問紙調査와 信賴度を 높이기 위해서 設問紙調査와 併行하여 실시된 것으로 直接面接法을 사용하였다.

3) P. R. Lawrence & J. W. Lorsch,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managing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Harvard Business School, 1967, p.16.

4) 野中郁二郎, “コンテンツ・エンシー理論の構造・展開・意義”, 「組織科學」, vol.10, No.4, 1978, pp.15~25.

〈표1〉 管理會計의 狀況理論的 獨立變數 및 從屬變數

研究者	獨立變數		從屬變數	
	狀況變數	組織構造變數	會計시스템의 特性	成果 등組織 效率性尺度
Khandwalla (1972)	企業이 直面한 競爭의 形態		會計的 統制의 精巧化	
Swiering a & Moncur (1972)	職位, 리더쉽, 組織의 信賴度, 職務의 明瞭性, 規模		豫算行動(積極參與의 行動, 熟中代表의 行動, 소극회생적 행동, 무관심, 용인적 행동)	
Bruns & Waterhouse (1975)	組織狀況(規模 技術, 依存關係)	• 構造化된 活動을 수반한 分權化 • 自律性的 缺如를 수반한 集權化	(官僚的 및 對人的 豫算編聯行動의 導入) 統制시스템의 複雜性과 認知된 統制水準	
Gordon & Miller (1976)	環境(動態性, 多樣性 및 非友好力 程度)	分權化, 官僚化, 資源의 利用可能性	會計 精報시스템의 技術的 諸特性	
Hayes (1977)	環境要因, 相互依存 要因, 內部要因		適切한 業績評價技術	部門業績
Waterhouse & Tiessen (1978)	• 環境의 豫測可能性 • 技術의 日常性	下位單位의 特性 (業務的, 管理的)	管理會計시스템의 設計	
小 島 (1978)	• 生産技術의 複雜性 • 市場의 不安定性		豫算管理 意思決定構造 (豫算管理시스템의 構造와 行動)	經營管理의 能力 感
近 藤 (1980)	環境의 不確實性	• 分權的 組織 • 集權的 組織(統制構造의 複雜性과 公式性)	豫算시스템의 多樣性과 適應性	
Merchant (1981)	企業의 狀況, 規模, 多樣性, 分權化의 程度		情報시스템 • 補助豫算 行動에 반영된 集權官僚的 豫算編成대 對人的 豫算編成	經營成果: 동기부여 態度 組織成果: 業績

D.T. Othley, "The Contingency Theory of Management Accounting: Achievement and Prognosis,"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Vol. 5. No. 4, 1980, p.420 參照.

設問紙調査 및 面接調査에 대한 業種別 實施狀況은 <표2>와 같다.

調査資料의 分析處理는 사회과학통계처리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사용하였다. 調査對象이 되는 많은 變數들의 선택과정이 일률적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本稿에서는 因子分析(factor analysis)⁵⁾ 方法을 사용하고 이로부터 나오는 因子決定係數(factor score coefficient)를 原資料와 結合하여 새로운 變數를 만든 후에 이들 變數에 대해 集落分析을 하여 크기가 다른 두 개의 集落으로 分類하였다.

<표2> 調査對象企業의 業種別 分布

종 목	대상회사수	설문지회수	분석대상회사수
음식료품제조업	31	17	17
섬유·의류·가죽산업	30	4	4
나무·종이제조업	12	6	5
화학섬유·제약 고무프라스틱	61	16	1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7	6	6
1차금속산업	18	5	4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업	52	35	26
종합건설업	29	10	9
무역 및 도·소매 종합상사	18	9	9
계	268	108	96

2. 變數의 設定

設問에 使用된 全體적인 變數의 內容은 <표3>과 같다. 이들 變數들의 相關分析에서 서로의 相關係數가 높은 것들이 많이 나타날 경우 이들 變數는 그 內容上 서로 獨立이지 못할 뿐 아니라 이들 變數 중 特定한 것들을 選擇하여 사용할 경우 一般的으로 全體의인 變數들 간의 關係를 說明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全體의 變數에서 因子의 數를 指定하지 않고 구해낸 因子分析에 의해서 因子의 數를 決定하여 새로운 因子와 因子決定係數를 구한다.

이때 因子의 數를 決定하는 方法은 여러가지가 있다. 물론 임의적으로 分析者의 必要나 直觀에 따라 決定될 수도 있으나 一般的으로 分散의 百分率(percentage of variance)이나 分散의 累積百分率(cumulative percentage of variance) 또는 固有值(eigen value)를 基準으로 決定한다. 本稿에서는 固有值가 1.0보다 큰 水準으로 變量의 累積百分率이 약 50% 程度를 基準으로 하여 因子數를 決定하였다.

5) 因子分析이란 多變量 資料의 여러 變數들 간에 相關關係를 생성시키는 숨은 要因들이 있어, 서로 독립적이면서 어떤 개념상의 의미를 갖는 공통요인을 찾아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變數가 지나치게 많은 資料는 集落分析을 하기 전에 因子分析을 먼저 실시하여 얻은 각 個體에 대한 요인점수들을 원래의 수치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因子分析은 集落分析을 하는 過程에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표3〉 設問項目別 變數 明細表

組織環境

- V. 1 同種他社와의 規模比較
- V. 2 需要市場의 細分化
- V. 3 顧客의 嗜好와 選擇의 多樣性
- V. 4 販賣促進手段의 多樣化
- V. 5 市場點有率 10% 增大
- V. 6 原資材確保
- V. 7 勞動力確保
- V. 8 機 械
- V. 9 專門人力
- V. 10 價格競爭
- V. 11 公正去來法
- V. 12 對外開放化推進
- V. 13 與信規制
- V. 14 相互出資制限
- V. 15 關稅 및 輸入制限
- V. 16 資金引上
- V. 17 事業認許可制度
- V. 18 投資 및 마케팅 機會
- V. 19 需要豫測
- V. 20 販賣價格動向豫測
- V. 21 新製品開發程度
- V. 22 研究開發
- V. 23 過去 5年間の 成長率
- V. 24 過去 5年間の 經營惡化
- V. 25 技術集約度
- V. 26 技術開發의 程度
- V. 27 製造方法의 複雜性
- V. 28 事業部間 製品·서비스의 對替
- V. 94 從業員數
- V. 95 賣出額

- V. 32 新製品開發
- V. 33 施設擴張
- V. 34 既存製品變更
- V. 35 作業割當
- V. 36 包裝의 디자인
- V. 37 販賣目標의 設定
- V. 38 製品價格決定

管理會計

- V. 39 部門業績評價와 會計資料利用
- V. 40 會社全體 業績評價基準
- V. 41 部門業績評價基準
- V. 42 標準原價
- V. 43 豫算制度
- V. 44 豫算差異分析
- V. 45 內部監査制度
- V. 46 豫算差異報告
- V. 47 同種他社의 事後的 財務情報
- V. 48 非財務的 情報
- V. 49 事前財務 情報
- V. 50 製品믹스
- V. 51 購買·製造·리스
- V. 52 製品 系列
- V. 53 製品價格
- V. 54 特別注文受諾 與否
- V. 55 設備擴張
- V. 56 市場進入
- V. 57 市場拋棄
- V. 58 業務計劃樹立時 豫算利用
- V. 59 貢獻利益法
- V. 60 給與와 業績評價
- V. 61 昇給·昇進과 業績評價
- V. 62 認定·支持와 業績評價
- V. 63 業績評價와 管理者의 成就感
- V. 64 業績評價와 生産方法改善

組織構造(分權化)

- V. 29 作業者の 採用·昇給·解雇
- V. 30 새로운 部署의 新設
- V. 31 人力需給計劃

V. 65 業績評價와 管理者의 成長發展

管理類型

- V. 66 既存製品에 대한 마케팅 強調
- V. 67 危險嗜好와 投資回轉
- V. 68 破滅的인 競爭戰略
- V. 69 漸進的인 成長強調
- V. 70 市場調査
- V. 71 意查決定모델 強調
- V. 72 最大利益強調
- V. 73 意查決定과 經驗·常識
- V. 74 費用·收益 檢討와 意查決定
- V. 75 職務規定程度
- V. 76 公式的인 統制와 規則規定
- V. 77 意思 流通經路의 構造化
- V. 78 財務와 營業情報 提供
- V. 79 非公式的인 關係의 協同

- V. 80 專門家의 獨者的인 意思決定
- V. 81 營業活動에 대한 意思決定
- V. 82 規則의 變更
- V. 83 重大한 論爭의 解決
- V. 84 外部 專門家의 提案
- V. 85 인센티브 提供
- V. 86 從業員補償
- V. 87 充分한 討議後 意思決定
- V. 88 報告書 資料의 活用
- V. 89 組織變更과 人的要素
- V. 90 責任있는 管理者會合

經營成果

- V. 91 收益性
- V. 92 成長性
- V. 93 安定性

즉 企業環境, 組織構造, 管理類型 및 管理會計機能에 대한 變數의 設定에 있어서 기본적인 類型을 찾아내고 諸項目의 次元을 줄이기 위해서 設問에 의한 資料를 因子分析하였는 바 이는 고려해야 할 變數의 수를 크게 줄임으로써 分析을 간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SPSS를 이용하여 直角回轉시킨 因子分析(varimax rotated factor analysis)을 한 결과 아이겐值(eigen value)가 1.0以上되는 因子들에 대한 算出表는 다음 <표4>에서 <표7>과 같다.

1) 企業環境

企業環境變數에서 因子의 重要도를 나타내는 아이겐值의 順序로 6個의 因子를 抽出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제목을 붙였다.

因子I은 技術로서 이 연구에서는 技術을 단지 製造業에서 生産技術 또는 직접적으로 작업에 관련되는 業務技術로 보아 複雜性(complexity)이라는 次元에서 측정·분석하였다.⁶⁾ 生産技術의 複雜性은 製品의 技術의 내용과 製造方法과 관련하여 製造作業의 곤란성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複雜性이 높은 技術이란 製品의 技術集約도와 新製品開發의 빈도가 높고 製造方法이 매우 다양한 生産技術을 말하며, 全體變量의 19.3%를 설명해 주었고 아이겐值는 5.790으로 나타났다.

因子II의 異質性이 높은 環境이란 市場에서 식별되는 情報源의 數가 많고 또한 이들 情報源의 相互關聯性이 낮으므로 각 情報源에 많은 情報量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되는 環境條件을 말하며 아이겐值는 3.293이고 全體變量의 11.0% 설명하고 있다.

6) 小島廣光, “環境と豫算管理意思決定構造”, 「企業會計」第28卷 第4號 (1976), pp. 81~90參照.
William J. Bruns, Jr. and John H. Waterhouse, “Budgetary Control and Organization Structur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1975), pp. 177~203參照.

〈표4〉 企業環境

積載值 0.6以上の項目

因子名	I	II	III	IV	V	VI	固有值	比率
I. 技術							5.790	19.3
V 21 新製品開發類度	0.63							
V 22 研究開發指向	0.72							
V 25 技術集經度	0.80							
V 26 技術開發의 程度	0.82							
V 27 製造方法의 複雜性	0.78							
II. 異質性							3.293	11.0
V 2 需要市場의 細分化		0.79						
V 3 顧客의 嗜好와 選擇의 多樣性		0.73						
V 4 販賣促進手段의 多樣化		0.68						
III. 競爭							2.129	7.1
V 6 原資材確保			0.63					
V 8 機械			0.76					
V 15 關稅 및 輸入制限			0.68					
IV. 動態性							1.925	6.4
V 20 販賣價格動向豫測				0.73				
V. 規模							1.694	5.6
V 1 同種他社와의 比較					0.66			
V 94 従業員數					0.80			
V 95 賣出額					0.71			
VI. 非友好的程度							1.541	5.1
V 13 與信規制						0.82		
V 14 相互出資制限						0.78		

因子III은 競爭으로서, 이는 오늘날 企業은 生産要素의 購買 및 製品의 販賣에서 競爭에 대처해야 됨을 의미하며, 아이겐值는 2.219이고 全體變量의 7.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因子IV는 動態性(dynamism)이다. 安定的인 環境에서는 消費者의 嗜好가 安定的이고 豫測可能하지만, 動態的인 環境에서는 不安定하고 豫測不可能한 상태를 말하며, 아이겐值는 1.925이고 全體變量의 6.4%를 설명하고 있다.

因子V 規模로서 child는 組織規模의 擴大가 조직의 分權化의 정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관계를 규모의 확대에 따른 조직내 複雜性的의 증대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다.⁷⁾ 因子V에

7) John Child, "Organization Structure and Strategies of Control: A Replication of the Aston Stud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June 1972) pp.163~177.

서는 ①同種 他社와의 比較 ②從業員數 ③賣出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因子가 총변량의 5.6%를 점하고 있으며 아이겐値는 1.694이다.

因子VI은 非友好的 程度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競爭者의 위협적인 행위나 稀少한 資源의 枯渴, 政府의 規制 또는 債權者의 督促 등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政府의 與信規制와 相互出資制限의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全體變量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2) 組織構造(分權化)

組織은 規模의 확대로 야기되는 커뮤니케이션과 調整의 문제를 해결하고 環境의 不確實性에 대처하기 위하여 分權化를 피하게 된다.⁸⁾ 그런데 集權化와 分權化는 조직의 權限이 어떻게 배분 또는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정도로 구분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集權化(centralization)란 조직의 중요한 意思決定이 조직의 上層部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分權化(decentralization)는 조직 전반에 걸쳐 意思決定權限이 대폭 委讓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한 조직의 下位階層에 의해 이루어지는 意思決定의 數가 많을수록, 보다 중요한 決定일수록, 결정에 의한 영향력이 클수록,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제약이 적을수록 分權化 정도는 높아진다.⁹⁾

組織構造變數에서 因子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아이겐値의 순서별로 2개의 因子가 抽出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선정된 10개의 變因들은 分權化에 대해 66.1%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33.9%는 측정의 오차 혹은 본 연구에서 선정되지 않은 變因들의 부분이다. 因子積載値를 0.6以上으로 하여 각 因子에 포함되는 變因들을 정리하면 <표5>와 같다.

<표5> 組織構造(分權化) 積載値 0.6以上の 項目

	I	II	固有値	比率
I. 製品관련 分權化			5.196	52.0
V. 32 新製品開發	0.74			
V. 33 施設擴張	0.66			
V. 34 既存製品의 變更	0.72			
V. 35 作業割當	0.62			
V. 36 包裝의 디자인	0.76			
V. 37 販賣目標의 設定	0.78			
V. 38 製品價格決定	0.83			
II. 人事·組織			1.413	14.1
V. 29 作業者의 採用·昇給·解雇		0.81		
V. 30 새로운 部署의 新設		0.84		
V. 31 人力需給計劃		0.81		

8) James D. Thompson, *Organizations in Action*, McGraw-Hill, 1967, pp.70~73.

9) 愼侑根, 「組織論」(서울:茶山出版社, 1981), p.163.

因子Ⅰ：製品관련 分權化

이 요인은 V.32新製品開發 V.33施設擴張 V.34既存製品變更, V.35 作業割當, V.36包裝의 디자인, V.37販賣目標의 設定, V.38製品價格決定에 관한 分權化 정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因子는 總變量의 52.05%를 점하고 있다.

因子Ⅱ：人事·組織

因子Ⅱ는 V.29作業者の 採用·昇給·解雇, V.30 새로운 部署의 新設, V.31人力需給計劃에 관한 分權化의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全體變量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

3) 管理會計機能

管理會計(management accounting)는 近代會計의 새로운 發展傾向의 하나이며 「企業會計를 管理的 機能의 側面에서 觀察하는 概念」¹⁰⁾으로서 「經營者の 經營管理를 위하여 도움이 되고 有用한 情報를 提供하는 內部的인 會計」¹¹⁾이다. 따라서 管理會計는 性格上 內部指向會計를 의미하며 企業外部의 利害關係者에게 報告를 目的으로 하고 있는 財務會計와 對照的인 概念이다.

管理會計는 企業環境의 變化 내지 進展에 따라 變하여 왔는 바 從來에 提示된 管理會計體系에 대한 見解를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¹²⁾

- (1) 管理會計를 그 手段의 側面에서 體系化하는 見解
- (2) 管理會計를 計算技術이 適用되는 領域에 따라서 體系化하는 見解
- (3) 管理會計를 그것이 奉仕하는 經營管理機能에 의하여 體系化하는 見解

오늘날 經營者的 計劃機能이 새로운 重要性을 가지게 되고 管理會計가 經營管理全般에 대하여 有用한 情報를 提供하여 그의 意思決定에 도움이 되는 會計라고 생각한다면 管理會計의 體系는 經營者的 經營管理機能 全般을 검토하여 그에 奉仕하는 會計로서 機能別로 體系化하는 것¹³⁾이 더욱 重要視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3의 管理會計에 대한 見解를 토대로 管理會計시스템의 양상을 측정된 결과 5가지 次元으로 管理會計시스템 變數들을 구성시켰고 이들 구성단위들이 27個의 變數들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앞서 본 연구의 분석방법에서 서술한 바와같이, 각 因子의 要因點數를 管理會計機能變數別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6>과 같다.

(1) 意思決定：8개의 變因으로 구성된 因子Ⅰ은 意思決定의 척도로서 種載值가 0.60이상되는 項目은 V.50製品믹스, V.51購買·製造·리스, V.52製品系列, V.53製品價格, V.54特別注文受諾與否決定, V.55設備擴張, V.56市場進入, V.57市場拋棄에 대한 것으로 이는 總變量의 38.2%를 차지하고 있다.

10) 金奎三, 「新管理會計」 博英社, 1980, p.11.

11) 尹根鎬, 「管理會計」 法文社, 1981, p.14.

12) 金奎三, op. cit., pp.32~34. 尹根鎬, op. cit., p.29~32.

13) 尹根鎬, op. cit., p.31.

〈표6〉 管理會計機能

積載值 0.6以上の 項目

因 子 名	I	II	III	IV	V	固有值	比率
I. 意思決定						10.327	38.2
V. 50 製品믹스	0.66						
V. 51 購買·製造·리스	0.79						
V. 52 製品系列	0.74						
V. 53 製品價格	0.67						
V. 54 特別注文수락여부	0.78						
V. 55 設備擴張	0.84						
V. 56 市場進入	0.77						
V. 57 市場拋棄	0.79						
II. 統 制						2.368	8.8
V. 43 豫算制度		0.75					
V. 44 豫算差異分析		0.79					
V. 58 期間計劃樹立時 豫算利用		0.64					
III. 業績評價						1.609	6.0
V. 39 部門業績評價와 會計資料			0.64				
V. 40 會社全體 業績評價基準			0.72				
V. 41 部門業績評價基準			0.72				
IV. 動機賦與						1.365	5.1
V. 60 給與와 業績評價				0.85			
V. 61 昇給·昇進과 業績評價				0.82			
V. 計 劃						1.250	4.6
V. 59 經營目標設定과 貢獻利益法					0.60		

(2) 統制：因子II에는 3개의 變因들이 포함되었다. 이 變因들의 特性을 보면 統制를 위한 豫算制度的 實施, 豫算差異分析, 期間計劃樹立時 豫算利用 등이 높은 積載值를 갖고 있으며, 이들은 全體變量의 8.8%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이겐值(固有值)가 2.368이다.

(3) 業績評價：3개의 因子가 因子III에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높은 因子積載值를 갖는 變因은 V.39部門業績評價時 會計資料의 利用 정도, V.40會社全體 業績評價基準 V.41部門業績評價基準에 관한 變因들이다. 따라서 因子III은 業績評價機能이라 할 수 있다.

(4) 動機賦與：因子IV에는 V.60業績評價가 給與에 미치는 영향, V.61業績評價와 昇給·昇進 등 2개의 因子가 포함되어 있다. 因子IV는 總變量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아이겐值는 1.365이다.

(5) 計劃：因子V에는 V.59經營目標設定時貢獻利益法の 利用정도이며, 이는 총변량의 4.6%를 설명하고 있으며, 아이겐值는 1.250이다.

4) 管理類型

본 연구가 설정한 13개의 管理類型에 관한 變因을 4개의 因子로 추출할 때 因子Ⅰ은 V.75, V.77, V.78로 柔軟性에 관한 것이고, 因子Ⅱ는 V.73, V.74, V.82로 最適化, 因子Ⅲ에 속하는 變因으로 V.66, V.67, V.68, V.69 등으로 危險選好, 因子Ⅳ는 V.85, V.86으로 強壓이라고 命名될 수 있다. 그리고, 선정된 13개의 變因이 우리나라 企業의 管理類型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지는 못하지만 50.0%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이 설명력을 因子별로 보면, 柔軟성이 20.7%, 最適化가 12.4%, 危險選好가 11.0%, 強壓이 5.9%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이 결과는 <표7>에 제시되어 있다.

<표7> 管理類型

積載值 0.6以上の 項目

	I	II	III	IV	固有值	比率
I. 柔軟性					5.173	20.7
V. 75 職務의 規定程度	0.79					
V. 76 公式的인 統制와 規則·規定	0.77					
V. 77 意思疎通經路의 構造化	0.75					
V. 78 財務와 營業情報 提供	0.74					
II. 最適化					2.750	12.4
V. 73 意思決定과 經驗·常識		0.80				
V. 74 費用·收益檢討와 意思決定		0.67				
V. 82 規則의 變更		0.72				
III. 危險·選好					1.969	11.0
V. 66 既存製品 마케팅 強調			0.69			
V. 67 危險選好와 投資回轉			0.77			
V. 68 減滅的인 競爭戰略			0.68			
V. 69 漸進的인 成長強調			0.73			
IV. 強壓					1.468	5.9
V. 85 目的達成과 인센티브提供				0.71		
V. 86 規定遵守와 從業員 보상				0.75		

3. 變數들간의 集落分析

分類를 하는 것은 인간활동의 기초적인 概念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이 과학이론의 발전에 필요한 概念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과학실험의 기본과정(a tendamental process of the practice of science)이라 할 수 있다.

集落分析(cluster analysis)¹⁴⁾ 方法은 실체물들의 표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集合에서 기인한 多變量統計學的인 절차(multivariate statistical procedures)이고 이러한 실체물들을 비교적 同質의 그룹으로 나누어 재편성 하려는 시도이다.

集落分析技法은 사용목적에 따라, i)실유형의 발견(finding a true typology) ii)모델적합 iii)소속그룹들에 대한 예측, iv)假說檢定 v)데이터 탐색 vi)가설생성(hypothesis genetrating), vii)데이터 축소(data reduction) 등 7가지의 사용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⁵⁾

분석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유클리드」의 거리(euclidian distance), 유사성의 계수(similarity coefficient) 등을 이용한 병합 방법(agglomerative method)이 있다. 이 중에는 유사성측도와 거리의 측도를 이용한 단일 「링크」방법(the nearest neighbor or single link method), 集落到 포함된 표본점들의 평균과 모든 점들의 자승편차의 총계(the total sum of squared deviation)를 이용한 「워드」의 방법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SPSS統計프로그램 중 集落分析 절차를 이용하여 企業環境, 組織構造, 管理會計, 管理類型變數 각각에 대해서 2개의 集落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표8>에서는 集落到 대한 構造를 요약하여 주고 集落別頻度數를 나타내 주고 있다.

<표8> 集落分類

	集 落 1		集 落 2		計
	會 社 數	集落平均	會 社 數	集落平均	會 社 數
企 業 環 境	38	2.89	58	3.66	96
組 織 構 造	48	2.35	48	3.67	96
管 理 類 型	18	3.00	78	3.54	96
管 理 會 計					
計 劃	17	2.76	79	3.91	96
統 制	17	3.29	79	4.45	96
業 績 評 價	17	3.12	79	3.99	96
意 思 決 定	17	3.08	79	4.50	96
動 機 賦 與	17	2.62	79	3.32	96

전반적으로 集落2에 속하는 企業은 複雜한 企業環境, 分權化, 管理會計시스템 및 管理類型的 精巧한 그룹에 속한다.

또한 <표9>의 교차분석표(crosstabs)에서 어떤 체계적인 양상을 발견하게 된다. 즉, 企業環境이 복잡하고, 組織構造가 分權化, 그리고 管理類型이 精巧한 企業들은 管理會計시스템이 精巧하게

14) 각 標本이 사전에 定義되지 않은 어떤 그룹의 구성원이 됨을 식별하여 그 자료의 구조를 파악하고, 집락의 형성과정과 그 특성, 그리고 식별된 그룹간의 관계등을 體系的으로 연구, 분석하는 과정의 총체를 集落分析이라 한다.

15) B.S. Everitt, *Cluster Analysis*, John Wiley & Sons, New York, 1974.

나타나 있으며, 企業環境, 組織構造, 管理類型 相互間에도 다소간에 관계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표9〉 變數間 集落

	企業環境		計		
	單純	複雜			
組織構造	集權的	25	23	48	$\chi^2 = 5.27042$ df = 1 p = 0.0217
	分權的	13	35	48	
	計	38	58	96	

	組織構造		計		
	集權化	分權化			
管理會計	單純	16	1	17	$\chi^2 = 14.01042$ df = 1 p = 0.002
	精巧	32	47	79	
	計	48	48	96	

	組織構造		計		
	集權化	分權化			
管理類型	單純	12	6	18	$\chi^2 = 1.70940$ df = 1 p = 0.1911
	精巧	36	42	78	
	計	48	48	96	

	管理類型		計		
	單純	精巧			
管理會計	單純	5	12	17	$\chi^2 = 0.80829$ df = 1 p = 0.3686
	精巧	13	66	79	
	計	18	78	96	

	企業環境		計		
	單純	複雜			
管理會計	單純	10	7	17	$\chi^2 = 2.29481$ df = 1 p = 0.01298
	精巧	28	51	79	
	計	38	58	96	

企業環境・組織構造・管理類型・管理會計시스템間의 關係分析

1) 企業環境과 組織構造의 關係(가설1의 검증 결과)

分權化에 의해서 經營活動을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集權化에 의해서 통제할 것인가 하는 統制戰略의 선택문제는 企業環境의 豫測可能性과 직접적인 關係가 있다. Thompson¹⁶⁾은 豫측할 수 없는 環境을 위한 組織的 反應으로 分權化된 下位시스템을 두어야 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技術의 複雜性이 增大되고 급속히 變化하여 豫測하기 어려운 動態的인 環境의 여러 要因들이 企業組織에 있어서 分權化의 必要性을 要求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企業環境과 組織構造는 密接한 關係가 있다는 가설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표10>에서 企業環境과 組織構造間에는 統計的으로 有意한 關係가 없다(F.值=2.986, P=0.087)

<표10> 企業環境과 組織構造變數間의 關係

變 量	自 乘 合	自 由 度	平均自乘	F.	P.
集 團 間	1.918	1	1.918	2.986	0.087
集 團 內	60.380	94	0.642		
全 體	62.297	95	0.656		

集團間自乘合 = $\sum (집단평균 - 전체평균)^2 \times$ 각 집단사례수

集團內自乘合 = $\sum (原點數 - 집단평균)^2$

全體自乘合 = $\sum (原點數 - 전체평균)^2$

이는 조직구조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기업체는 공식화된 集權的 組織構造와 構造化된 직무체 제 그리고 權威的 權限關係가 우리 나라 기업조직의 일반적인 특징임을 나타내고 있다.¹⁷⁾

2) 組織構造와 管理會計시스템間의 關係(가설2의 검증 결과)

管理會計의 有用성은 組織構造와 직접적인 關係가 있다.¹⁸⁾ 分權化된 企業에서 管理者들은 그들의 責任範圍를 반영하는 業績測定에 의하여 評價되어지는 것을 선호한다. 士氣의 低下 그리고 갈등의 심화는 下位單位 활동에서 統合과 分權化를 反映하지 않고 측정하는 전통적인 會計評價

16) J. D. Thompson, *Organization in Action* (McGraw-Hill, 1967).

17) R. H. Chenhall and D. Morris, "The Impact of Structure, Environment, and Interdependence on the Perceived Usefulness of Management Accounting Systems," *The Accounting Review* (January 1986), p. 20.

18) 李學鍾, 「企業文化와 組織開發」 法文社, 1986, pp. 181~182.

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¹⁹⁾ 企業環境의 不確實性이 높아짐에 따라 組織構造는 分權化되어지고 따라서 計劃과 統制의 手段으로 管理會計시스템이 精巧하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날 많은 意思決定 모델이 不確實性下의 經營管理를 위하여 설계되어지고 있으며 管理會計教科書들은 不確實性을 分析하기 위한 統計的技法과 計劃을 위해서 公式的 모델의 많은 예를 들고 있다.

〈표9〉에서 組織構造와 管理會計시스템은 有意한 關係가 있다. ($\chi^2=14.01042$, $df=1$, $P=0.002$).

이어서 分權化의 정도와 管理會計시스템 諸變數들간의 關係에 대한 통계적 有意度를 검증하기 위해서 一元變量分析을 한 결과, 〈표11〉에서 分權化와 意思決定($F\cdot值=19.699$, $P=0.000$), 統制($F\cdot值=6.510$, $P=0.012$), 業績評價($F\cdot值=23.630$, $P=0.000$), 動機賦與($F\cdot值=4.532$, $P=0.036$), 計劃($F\cdot值=14.048$, $P=0.000$) 즉, 이들은 각각 0.05水準에서 有意하였다.

〈표11〉 分權化와 管理會計시스템變數 關係

區 分	變 量	自 乘 合	自 由 度	平 均 自 乘	F.	P.
分權化·意思決定	集 團 間	10.750	1	10.750	19.699	0.000
	集 團 內	51.297	94	0.546		
	全 體	62.047	95	0.653		
統 制	集 團 間	3.375	1	3.375	6.510	0.012
	集 團 內	48.731	94	0.518		
	全 體	52.106	95	0.548		
業 績 評 價	集 團 間	10.466	1	10.466	23.630	0.000
	集 團 內	41.553	94	0.442		
	全 體	51.999	95	0.547		
動 機 賦 與	集 團 間	4.378	1	4.378	4.532	0.036
	集 團 內	90.807	94	0.966		
	全 體	95.185	95	1.002		
計 劃	集 團 間	13.500	1	13.500	14.048	0.000
	集 團 內	90.333	94	0.961		
	全 體	103.833	95	1.093		

이러한 결과는 組織構造가 相異한 會社에서는 管理會計시스템에서 有意的인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組織構造와 管理類型간의 關係(가설3의 검증 결과)

環境이 多樣化하고 組織規模가 커지면서 意思決定權限의 委讓이 점차 이루어짐에 따라, 分權

19) G. Shillinglaw, *Cost Accounting: Analysis and Control* (Irwin, 1972), p.426.

化의 程度가 큰 企業에서 經營管理를 위한 管理類型²⁰⁾ 變數들의 特性이 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組織構造는 管理類型에 影響을 준다는 假設이 設定되었다.

<표12>에서 組織構造와 管理類型間에는 有意한 關係가 있다(F·值=15.982), P=0.000) 따라서 組織構造의 分權化程度는 管理類型에 強한 影響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12> 組織構造와 管理類型變數間의 關係

變 量	自 乘 合	自 由 度	平 均 自 乘	F.	P.
集 團 間	2.110	1	2.110	15.982	0.000
集 團 內	12.408	94	0.132		
全 體	14.517	95	0.153		

4) 企業環境과 管理類型間의 關係(假設4의 檢證 結果)

<표13>에서 企業環境과 管理類型間에는 有意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F·值=11.159 P=0.001) 즉 企業環境과 管理類型은 從屬的이다.

<표13> 企業環境과 管理類型間의 關係

變 量	自 乘 合	自 由 度	平 均 自 乘	F.	P.
集 團 間	1.541	1	1.541	11.159	0.000
集 團 內	12.977	94	0.138		
全 體	14.517	95	0.153		

5) 管理類型과 管理會計시스템間의 關係(假設5의 檢證 結果)

管理類型과 管理會計시스템變數에 대한 一元變量分析 結果 <표14>에 의하면 管理類型과 動機賦與(F·值=1.368, P.=0.245), 管理類型과 計劃(F·值=2.908, P.=0.091)은 각 集落間에 有意的인 差異가 없으나 管理類型과 意思決定(F·值=5.532, P.=0.021), 統制(F·值=22.089, P.=0.000), 業績評價(F·值=6.598, P.=0.012)는 有意하였다.

20) P. N. Khandwalla는 管理類型을 危險選好, 最適化, 柔軟性, 參與 그리고 強壓 등 5개의 次元으로 分類하였다.

P.N. Khandwalla, *Design of Organization* (N. Y.: Hartcourt Brace Jovanovich, 1977), pp.398~399.

〈표14〉 管理類型과 管理會計시스템變數 關係

區 分	變 量	自 乘 合	自 由 度	平 均 自 乘	F.	P.
分 權 化 · 意 思 決 定	集 團 間	3.448	1	3.448	5.532	0.021
	集 團 內	58.598	94	0.623		
	全 體	62.047	95	0.653		
統 制	集 團 間	9.915	1	9.915	22.089	0.000
	集 團 內	42.192	94	0.449		
	全 體	52.106	95	0.548		
業 績 評 價	集 團 間	3.411	1	3.411	6.598	0.012
	集 團 內	48.588	94	0.517		
	全 體	51.999	95	0.547		
動 機 賦 與	集 團 間	1.365	1	1.365	1.368	0.245
	集 團 內	93.819	94	0.998		
	全 體	95.185	95	1.002		
計 劃	集 團 間	3.115	1	3.115	2.908	0.091
	集 團 內	100.718	94	1.071		
	全 體	103.833	95	1.093		

5. 管理會計시스템의 決定 要因(가설6의 검증 결과)

管理會計시스템은 企業環境 · 組織構造 및 管理類型으로 부터 공동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이들 變數들간의 相互作用效果²¹⁾를 판단하고자 多元變量分析(N-way Analysis of Variance)을 하여 變數들 間的 適合關係를 분석하였다.

1) 意思決定

組織構造와 意思決定은 有意하지만(F·值=15.014 df=1, P=0.000) 어느 경우에도 相互作用效果는 有意하지 아니하였다. 〈표15참조〉

2) 統制

〈표16〉에서와 같이 組織構造와 企業環境은 管理會計시스템變數 중 統制的 有意한 決定要因은 아니지만, 管理類型은 管理會計變數 중 統制的 有意한 決定要因이다.

相互作用 效果는 어느 경우에도 有意하지 않다.

21) 主效果로 인한 變量이 아니며, 誤差變量으로도 처리될 수 없는 變量이다. 즉 相互作用效果變量은 主效果變量이 제거된 후 個別集團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非誤差變量(nonerror variance)을 말한다.

〈표15〉 意思決定에 대한 企業環境·組織構造·管理類型的 分散分析

區 分	自 乘 合	自 由 度	平 均 自 乘	F.	p.
主 効 果					
A. 組織構造	8.363	1	8.633	15.014	0.000
B. 管理類型	1.666	1	1.666	2.991	0.087
C. 企業環境	0.043	1	0.043	0.077	0.782
相互作用効果					
A×B	0.143	1	0.143	0.257	0.614
A×C	0.001	1	0.001	0.003	0.959
B×C	0.051	1	0.051	0.092	0.762
A×B×C	0.219	1	0.219	0.393	0.532
集 團 內	49.019	88	0.557		
全 體	62.047	95	0.653		

〈표16〉 統制에 대한 企業環境·組織構造·管理類型的 分散分析

區 分	自 乘 合	自 由 度	平 均 自 乘	F.	p.
主 効 果					
A. 組織構造	1.209	1	1.209	2.841	0.095
B. 管理類型	7.174	1	7.174	16.859	0.000
C. 企業環境	0.873	1	0.873	2.052	0.156
相互作用効果					
A×B	0.274	1	0.274	0.643	0.425
A×C	0.011	1	0.011	0.026	0.873
B×C	0.399	1	0.399	0.938	0.335
A×B×C	1.327	1	1.327	3.118	0.081
集 團 內	37.445	88	0.426		
全 體	52.106	95	0.548		

3) 業績評價

〈표17〉에서 組織構造와 企業環境은 管理會計變數인 業績評價에 有意한 影響要因으로 되고 있으나, 管理類型과 모든 相互作用效果는 어느 경우도 有意하지 않다.

4) 動機賦與

多元變量分析을 하여 企業環境·組織構造·管理類型的 動機賦與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어느 경우에도 有意한 差異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3개의 獨立變因間의 相互作用效果도 나타나지 않았다(표18참조).

따라서 動機賦與效果는 企業環境·組織構造·管理類型의 相互作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17〉業績評價에 대한 企業環境·組織構造·管理類型의 分散分析

區 分	自 乘 合	自 由 度	平 均 自 乘	F.	p.
主 効 果					
A. 組織構造	5.863	1	5.863	15.048	0.000
B. 管理類型	0.915	1	0.915	2.349	0.129
C. 企業環境	4.247	1	4.247	10.899	0.001
相 互 作 用 効 果					
A × B	0.832	1	0.832	2.136	0.147
A × C	0.020	1	0.020	0.051	0.821
B × C	0.233	1	0.233	0.598	0.441
A × B × C	0.012	1	0.012	0.030	0.862
集 團 內	34.286	88	0.390		
全 體	51.999	95	0.547		

〈표18〉動機賦與에 대한 企業環境·組織構造·管理類型의 分散分析

區 分	自 乘 合	自 由 度	平 均 自 乘	F.	p.
主 効 果					
A. 組織構造	2.317	1	2.317	2.400	0.125
B. 管理類型	0.307	1	0.307	0.318	0.574
C. 企業環境	2.400	1	2.400	2.486	0.118
相 互 作 用 効 果					
A × B	0.810	1	0.810	0.839	0.362
A × C	0.146	1	0.146	0.151	0.698
B × C	0.758	1	0.758	0.785	0.378
A × B × C	0.831	1	0.831	0.861	0.356
集 團 內	84.967	88	0.966		
全 體	95.185	95	1.002		

5) 計劃

組織構造에 의한 差異만을 보였고 나머지 管理類型, 企業環境에 의한 差異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3개의 獨立變因間의 相互作用效果도 나타나지 않았다(표19참조).

따라서 相互作用이 어느 경우에도 有意味하지 않으므로 相互作用을 뒷받침 할만한 根據가 없기 때문에 가설6은 支持할 수가 없다.

相互作用이 없으므로 主效果들은 제각기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표19> 計劃에 대한 企業環境·組織構造·管理類型의 分散分析

區 分	自 乘 合	自 由 度	平 均 自 乘	F.	p.
主 効 果					
A. 組織構造	9.426	1	9.426	0.643	0.003
B. 管理類型	0.922	1	0.922	0.943	0.334
C. 企業環境	1.419	1	1.419	1.452	0.231
相 互 作 用 効 果					
A × B	0.026	1	0.026	0.027	0.870
A × C	0.230	1	0.230	0.235	0.629
B × C	1.012	1	1.012	1.036	0.312
A × B × C	0.238	1	0.238	0.244	0.623
集 團 內	86.017	88	0.977		
全 體	103.833	95	1.093		

6. 狀況的 適合性(가설7의 검증 결과)

企業環境과 組織特性變數의 適合은 組織體의 성과(performance)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收益性, 成長性, 安定性을 기준으로 조직체의 성과를 비교해 볼 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고 分權化의 정도도 큰 상황하에서는 하위시스템 행동에 대한 통합작용이 많을수록 조직체의 성과도 높게 나타났다.²³⁾ 따라서 조직체환경이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상황하에서는 분권화된 조직구조의 신축적인 운영 그리고 有機的인 통합작용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직체환경이 복잡하지 않고 안정된 상황하에서는 集權的 조직구조에 의한 운영 그리고 機械的인 통합작용도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²⁴⁾

23) 李學鍾, op. cit., p.125.

24) Paul Lawrence and Jay Lorsch, *Designing Complex Organizations*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3).

V. 結 論

이 연구에서는 管理會計시스템이 經營管理活動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 實態를 조사하고, 管理會計시스템의 設計·運用에 영향을 미치는 企業環境과 管理類型 그리고 組織構造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最適의 管理會計시스템을 구상하고 설계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指針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한국의 上場會社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법에 의한 實證的 研究를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첫째, 최고경영층의 의사결정 권한이 하위계층으로 대폭 위양되어 分權化의 정도가 확대되면 될수록 관리회계시스템 구조는 精巧化하였다.

그러나 환경의 불확실성, 기술 규모 등의 企業環境變數는 관리회계시스템의 설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조직구조와 管理類型變數를 媒介로 하여 管理會計시스템의 構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企業環境變數와 組織構造變數, 管理類型變數 및 管理會計시스템變數를 관련시켜 分析함으로써 管理會計시스템을 設計하거나 變化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組織構造와 管理類型的 變化가 管理會計시스템의 效率를 증대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管理會計시스템이 組織에 대한 기여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管理會計의 技術的側面 이외에 관련된 組織變數들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面接과 設問紙에 의하여 수집한 資料를 統計的으로 分析함으로써, 變數들의 조작없이 관련 變數들간의 관계에 관한 단정적인 推論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에 걸쳐서 연구에 관련되는 變數이외의 다른 變數들을 統制하면서 關聯變數들간의 因果關係를 밝힐 수 있는 研究方法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는 相互關聯되고 있는 變數들의 定義와 尺度를 보다 엄격하고 精巧하게 하고 標本크기를 더 늘리고 多樣하게 하면서 방법론적 한계를 넘어서는 보다 다각적이고 깊이있는 연구가 행해질 때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Summary

A Study of Management Accounting System in Korean
Business Enterpris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Kahng Hee-soo

Contingency theory of management accounting have become a current vogue but have produced few significant new results.

The contingency approach to management accounting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re is no universally appropriate accounting system which applies equally to all organizations in all situations.

This research study hav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operating context, management style, organization's structure and management accounting. A conceptual framework developed from accounting, organizational, and management literature in order to provide an overall framework for the empirical study. A field study was conducted in listed companies in the Korean business environment. The questionnaire was sent to the controllers who have accounting responsibility of 268 companies. Of the 268 questionnaires distributed, 108 were returned, these yielded 96 usable questionnaires for this analysis.

Based on an empirical study it appears that management accounting systems are a function of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management style. Statistical tests confirmed that organization's environment are related to management.

In addition, the empirical study indicated that organization's environment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are independent of each other. However,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s of the environment, it appears that management accounting system, structure and management style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each other.